

청년기 여성의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여성들의 지지에 의해 조절된 통제감의 매개효과*

김 가 영

이 지 연[†]

한국외국어대학교

본 연구는 여성의 우울을 설명하는 사회맥락적 요인에 주목하여,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이 우울에 어떤 경로를 통해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 청년기 여성의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과 우울의 관계에서 통제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으며, 이러한 매개효과를 여성들의 지지가 조절하는지 검증하였다. 이를 위해 청년기 여성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참여자들은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 척도, 통제감 척도, 무망감 우울증상 척도, 여성들의 지지 척도가 포함된 설문지에 응답하였다. 총 271명의 응답자료가 통계분석에 사용되었다. 수집된 자료는 SPSS 22.0과 PROCESS Macro for SPSS 3.5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년기 여성의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과 우울의 관계를 통제감이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완전매개 효과가 검증되었다. 둘째, 청년기 여성의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과 통제감, 우울의 관계에서 여성들의 지지 변인의 조절된 매개 효과가 검증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 결과의 의의와 청년기 여성의 우울에 대한 상담 개입 전략을 논의하였으며, 아울러 본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 연구를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주요어 :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 우울, 통제감, 여성들의 지지

* 본 연구는 김가영(2021)의 한국외국어대학교 석사학위 논문을 수정 보완한 것임.

† 교신저자: 이지연,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육대학원 상담심리전공 부교수, (0245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로 88 교수회관 316호, Tel: 02-2173-3086, E-mail: jiyeeon.lee@hufs.ac.kr

우리나라를 포함한 여러 문화권에서 우울은 남성보다 여성에게 2배 정도 더 흔하게 나타나며(김유나, 이계창, 2018; Kessler, 2003) 특히 20대 이후를 살펴보면 여성이 남성보다 2.4배 정도 많이 우울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한인영, 홍선희, 2011). 그 중에서도 청년기 여성의 우울은 최근 몇 년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 빅데이터 분석결과에 따라 연령별 우울증 환자를 비교하면 20-30대 여성 환자는 2016년에 81,320명, 2020년은 163,903명으로 4년 간 약 101% 증가하였다. 이는 같은 기간에 40-50대 여성 환자가 약 10%, 60-70대 여성 환자가 약 9.64%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큰 폭으로 증가하였는데 이에 따라 청년기 여성의 우울을 연구할 필요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최근 실시한 2021년 2분기 코로나19 국민 정신건강 실태조사 결과에서도 20-30대와 여성의 우울이 크게 나타났다. 20대, 30대의 우울 평균점수는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았고, 우울 위험군 비율도 각각 50대와 60대에 비해 1.5배 이상 높았다. 또한 우울 점수는 여성 5.3점, 남성 4.7점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높게 나타났다으며 우울 위험군도 여성이 남성보다 높게 나타났다.

우울은 우울한 기분, 수면 및 식욕의 변화, 피로감과 활력 상실, 무가치함과 부적절한 죄책감, 그리고 주의집중력의 감소 등을 핵심증상으로 가지며, 우울장애를 경험하는 사람은 능력과 의욕이 저하되고 현실적인 적응에서 어려움을 겪는다(김유나 외, 2018). 이처럼 우울을 경험하는 것은 한 개인이 사회에 적응하며 살아가는 것을 어렵게 한다. 또한 자살한 사람의 3분의 2 정도가 우울증을 경험하는 것으로 보고되며 우울은 여러 정신질환 중 자

살과 가장 관련이 깊다(강상경, 2010; Rihmer, 2007). 이처럼 우울은 현실 생활의 어려움에서부터 자살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부정적인 결과를 유발한다. 여성의 우울이 남성보다 높은 유병률을 보이고 특히, 청년기 여성은 다른 연령대에 비해 우울증의 증가 폭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청년기 여성이 경험하는 우울에 대해 관련 변인을 탐색하고 이에 적합한 심리적 개입의 방법을 찾는 것은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여성은 사회나 가정에서 남성과는 다른 역할을 가지고 있으며, 사회가 여성에게 기대하는 책임이나 조건도 남성에게 기대하는 바와 다르다. 여성은 사회적 맥락 속에서 남성과 다른 경험을 하기 때문에, 여성의 경험은 사회적 맥락 안에서 이해되어야 한다(한인영 외, 2011). 남녀 중 우울을 누가 더 많이 느끼는지에 대한 성별 격차는 사회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데 이를 통해 사회맥락적 요인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할 수 있다. 여성의 경제참여와 노동시장에서의 지위가 높은 북유럽 국가에서는 우울에 대한 성별 격차가 적게 나타났으며, 상대적으로 여성이 노동시장에서 지위가 낮은 남유럽과 동유럽 국가에서는 성별 정신건강의 격차가 크게 나타났다(Chen, Subramanian, Acevedo-García, & Kawachi, 2005). 여성이 직업을 가지고 경제활동을 할수록, 성별 소득 격차가 작을수록, 여성의 우울은 남성의 우울과 격차가 줄어드는 것이다. 국내 연구에서도 이와 일치하게 여성의 우울은 노동시장의 지위(이명신, 부수현, 2019)나 사회경제적 지위(박경순, 박영란, 2018, 박은옥, 2020)와 같은 사회적인 요인으로 주요하게 설명되고 있다. 이처럼, 사회에서 성별에 따라 주어지는 역할과 정체성이 다르며, 성별에 따라

다른 경험을 하기 때문에 여성의 경험은 사회의 맥락 속에서, 사회적 위치로부터 설명되어야 한다.

여성의 우울에 대한 근원이 외부적 요인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며, 사회 환경의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적절하게 개입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심리 내적 요인에만 초점을 맞추는 심리치료모델은 적절하지 않으며(정안숙, 2015) 각 개인은 더 큰 사회체계 내에 존재한다는 이해를 바탕으로 해석해야 한다. 이처럼 최근 상담심리학계에서는 사회정의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합의를 기초로, 개인이 속한 공동체나 사회정책 등 사회환경적 맥락으로 범위를 확장해서 바라보는 추세가 가속화되고 있다(최가희, 2018). 이에 따라 여성의 우울에 개입할 때도 사회나 공동체 등 거시적인 관점에서의 변화가 가능하도록 상담자는 자신의 역할을 확장하고(Constantine, Hage, Kindaichi, & Bryant, 2007), 사회맥락의 영향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즉, 여성의 우울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개인이 여성으로서 사회 내에서 어떤 경험을 하고 있으며, 그 경험을 토대로 사회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사회적 맥락에 대해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여성의 경험을 토대로 형성된, 사회에 대한 인식에 대해 살펴볼 수 있는 변인 중에서 심리적 적응을 예측하는 변인으로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Belief in a Just World)'이 있다(Jiang, Yue, lu, Yu, & Zhu, 2016).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은 어린 시절부터 형성되는 인지 양식이며, 개인은 타인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지속적으로 받게 되면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이 낮아지게 된다(Dalbert, 1992). 이처럼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은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사회가 정당하다고 믿는지에 대한

개인의 인식을 살펴볼 수 있는 변인으로, 개인의 경험을 토대로 형성된 사회에 대한 신념을 확인할 수 있는 변인이다. 우리나라에서 여성은 다양한 차원의 미묘한 성차별(강혜원, 이정운, 2020),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형태의 범죄(김다운, 이창한, 2017), 그리고 노동시장 내에서의 직·간접적인 차별(신하영, 2017) 등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와 같은 지속적인 부당한 대우로 인해 자신이 살아가고 있는 사회가 정당하지 않다고 믿게 될 가능성이 크다.

세상이 부당하다는 인식은 높은 우울을 예측하는 변인으로(Fischer, & Holz, 2010), 개인의 심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특히,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이 낮은 것은 무망감(Nudelman, Otto, & Dalbert, 2016)과 우울(Schmitt and Maes, 1999; Correia, & Dalbert, 2007에서 재인용)을 높게 경험하게 한다.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과 우울의 직접적인 관련성을 살펴보면, 유의한 부적 관계가 검증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윤소미, 2019; 정선희, 2021). 이처럼 세상이 정당하다고 여기는 경우, 개인의 심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며, 반대로 세상을 부당하다고 인식할수록 우울감이 유의하게 높아진다(Otto, Boos, Dalbert, Schöps, & Hoyer, 2006).

이처럼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이 낮은 개인은 높은 우울감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를 설명하는 주요한 심리적 요인으로 통제감을 들 수 있다.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이 높은 사람은, 낮은 사람과 비교했을 때 일상생활에서 통제감을 더 많이 느끼게 된다(Correia et al., 2007). 즉,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이 낮은 경우에는 통제감을 적게 느끼게 되는데, 이렇게 자신이 상황을 통제할 수 없다고 여길

경우에는 우울을 경험하게 된다(Burger, 1984; Costello, 1982; Evans, 1981; Fleming & Courtney, 1983; Mullins, Siegel, & Hodges, 1985). 학습된 무기력 이론(Seligman, 1972)에 근거하면, 통제할 수 없는 반복된 좌절경험은 우울에 있어서 필수적으로 전제되는 요소이다. 반복된 좌절경험을 통해 자신의 반응과 결과가 관련이 없다는 것을 학습하게 되어 통제감을 상실하게 되고(Hiroto, & Seligman, 1975), 낮아진 통제감은 무기력과 우울을 경험하게 한다. 이처럼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은 개인에게 통제감을 제공하여, 부정적인 현실에 대해 심리적 완충효과를 제공한다(Furnham, 2003).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이 높은 개인은 누구나 노력을 한 만큼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 되며, 세상을 예측 가능한 곳으로 보고, 환경을 통제할 수 있다는 느낌을 갖게 된다(Lerner, 1980; Lerner & Miller, 1978). 즉, 자신이 취하는 행동에 따라 적절한 결과를 받을 수 있다고 믿게 된다. 따라서 개인이 통제감을 가질 때,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며 상황을 조절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또한, 통제감을 가진 경우에는 생활 스트레스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을 적게 받아(Bandura, 1999; Schwarzer, 1992) 우울을 적게 경험할 수 있으며, 통제감을 낮게 지각한 개인일수록 우울감을 높게 보고 한다(채향화, 2011; 최지윤, 오경자, 2014). 이러한 연구를 종합해보면,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은 개인에게 세상을 예측 가능한 곳으로 보게 하고 통제감을 갖게 하며, 이러한 통제감을 매개로 우울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즉,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과 우울의 관계에서 통제감이 매개효과를 가질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사회 내에서 자신의 낮은 통제감을 인식하는 것은 높은 우울을 경험하게 하는데(Burger, 1984), 이를 통제하는 요인으로 사회적 지지가 있다. 사회적 지지는 스트레스 및 부정적 사건이 심리적 건강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완화시키고(박지원, 1985), 우울 및 자살 생각에 완충효과를 미친다(배지연, 김원형, 윤경아, 2005). 이처럼 현재, 사회적 지지는 심리적 건강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다양하게 연구되고 있으며, 동료의 지지(박미화, 2016; 홍영수, 2004)나 부모·교사·친구의 지지(이미라, 2000; 황매향, 김영선, 2010)와 같이 특정 대상으로부터 받는 지지로 구체화되어 연구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여성들의 지지'로 구체화하여 사용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정의하는 여성들의 지지는 여성들로부터 받는 사회적 지지를 의미한다. 사회적 지지란, 자신이 돌보아지고 있으며 사랑받고 있는 가치 있는 구성원이라고 느껴지게 하는 정보이다(Cobb, 1976). 즉, 여성들의 지지란 자신이 돌봄과 사랑을 받고 있으며 가치 있다고 느껴지게 하는, 여성들로부터 받는 모든 정보적·정서적 지지를 의미한다.

여성들의 지지가 여성에게 미치는 영향에 관한 선행연구를 토대로 살펴보면 여성들의 지지가 통제감을 조절하여 우울을 완화시키는 방안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예측해볼 수 있다. 고영란(2015)의 연구에서 디지털 성폭력 사건을 접하고 무기력감을 느낀 여성들은 같은 감정을 표출하는 여성들의 지지를 통해 무기력을 사회 참여적인 행동으로 바꾸었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 맥락으로, 여자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질적연구에서, 불법촬영과 같이 여성으로서 경험하는 성범죄 사건들로 인해 낮아진 통제감을 회복하고, 무기력과 불안을 해소

할 수 있는 방법은 여성들끼리 지지를 주고 받는 것이라고 하였다(Kim, & Lee, 2021). 또한 여성들의 통제감,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 스트레스, 그리고 삶의 질의 관계를 검증한 연구(Fischer, Holz, 2010)에서는 여성들에게 통제감을 갖도록 하기 위해 다른 여성들과 연결되는 경험의 기회를 제공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는 다른 여성들과의 연결되는 경험이 통제감을 회복하여 스트레스를 줄이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러한 결과는 공동체 내의 상호작용 경험이 공동의 문제를 인식하고 사회적 유능감을 갖는 데에 도움이 되며, 사회 참여행동을 강화하기 때문(강가영, 장유미, 2013)이라고 볼 수 있다.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에서 주어지는 여성들의 지지도 주체성과 통제성을 회복하도록 한다. ‘여성들만의 온라인 커뮤니티’에 모이게 된 여성들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서로를 지지하고 공동체성을 형성하는데, 이것이 주체성과 통제감의 회복을 이루고 사회참여를 이끌어낸다(이솔, 2011). 여성들의 지지가 회복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자기 서사를 편견 없이 들어주는 환경이 중요한데, 다른 여성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이해할 것이라고 믿으며, 이로 인해 안전하게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을 때, 즉 여성들의 지지를 충분히 경험할 때, 통제감이 회복되기 때문이다(김효인, 2016). 이처럼 여성과 여성 심리를 중점적으로 진행한 연구를 살펴보면, 여성들의 통제감을 회복하고 무기력을 완화시켜 여성들이 경험하는 부정적인 정서를 효과적으로 다루기 위해서는 여성들의 지지가 필요하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

이러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하여 본 연구에서는, 청년기 여성의 정당한 세상에 대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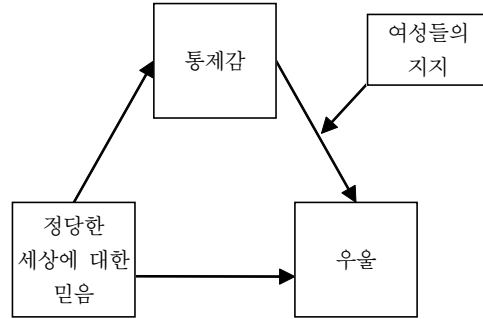


그림 1. 조절된 매개효과의 개념적 모형

믿음과 우울의 관계에서 통제감의 매개효과를 살펴보고, 이에 대한 여성들의 지지의 조절된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우울에 이르는 구체적인 경로를 탐색하며, 심리적 개입을 위해 접근할 수 있는 변인에 대해 확인하고 검증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청년기 여성의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 통제감, 우울, 그리고 여성들의 지지의 구조적 관계를 검증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으며, 구체적인 연구모형은 그림 1과 같다.

연구문제1: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통제감이 매개하는가?

연구문제2: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과 우울의 관계에서 통제감이 매개할 때, 여성들의 지지가 통제감과 우울의 관계를 조절하는가?

방 법

연구대상

본 연구는 만 20대와 30대인 청년기 여성을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에서 의미하는 여성이란, 생물학적 성별(sex) 혹은 사회적 성

표 1. 연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N=271)

구분	분류	빈도	비율(%)
나이	20대	229	84.5
	30대	42	15.5
거주 지역	서울	126	46.5
	경기/인천	105	38.7
	강원도	6	2.2
	충청/대전	9	3.3
	부산/대구/울산/경상도	19	7
	광주/전라도	4	1.4
	제주도/해외	2	0.7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94	34.7
	전문대학교 졸업	11	4.1
	대학교 졸업	134	49.4
	석사 졸업 이상	32	11.8

별(gender) 둘 중 하나가 여성인 사람을 의미한다. 연구 참가자들은 대학별 커뮤니티 게시판, SNS, 여성 관련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모집되었다. 참가자들은 연구대상자를 위한 설명을 읽고 연구동의서에 자발적으로 동의하였다. 설문에 응답한 306명 중 만 19세 이하, 만 40대 이상, 혹은 남성과 같이 연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응답자들의 자료 35개를 제외하여 총 271명의 설문응답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성실하게 응답한 응답자들 중 연락처를 기입한 모든 참가자들은 연구 참가에 대한 보상으로 커피 기프트콘을 지급받았다. 연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측정도구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

본 연구에서는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을 측정하기 위해 한국어판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 척도(Belief in a Just World Scale: K-BJWS)를 사용하였다. 이는 Lucas, Alexander, Firestone, LeBreton(2007)이 개발하고 Lucas Zhdanova, Alexander(2011)가 개정하였으며, 김은하, 김도연, 박한솔, 김수용, 김지수(2017)이 한국어로 번안 및 타당화한 척도이다. 전체 문항의 수는 총 16문항이며 정당한 세상에 대한 개인적인 믿음(BJW-self), 정당한 세상에 대한 일반적인 믿음(BJW-others) 2개의 하위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하위 요인 별로 각 8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자기 자신 혹은 다른 사람과 얼마나 일치하는지에 대해 응답하도록 되어 있으며, 응답은 '매우 동의하지 않음'(1점)부터 '매우 동의'(7점)까지의 7점 척도로 응답하도록 되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자신에 대해, 혹은 다른 사람에 대해 지각하는 공정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김은하 등(2017)의 연구에서의 신뢰도(Cronbach's α)는 .90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전체 문항의 신뢰도(Cronbach's α)는 .94로 나타났다.

통제감

본 연구에서 통제감을 측정하기 위해 Pearlin, Lieberman, Menaghan, 및 Mullan(1981)이 개발 통제력 측정도구(Mastery Scale)를 김미혜, 이금룡, 그리고 정순들의 연구(2000)에서 번안하여 사용한 통제감 척도를 사용하였다. 통제감 척도는 총 7문항이며 2개의 하위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위 요인으로는 무력감과 자아통제감이 있으며 각각 5문항, 2문항으로 구성된다. 무력감은 '의지대로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다', '현재 직면한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와 같은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자아 통제감은 '대부분의 일은 내가 하기 나름이다', '마음먹은 일은 무엇이든 할 수 있다'라는 문장으로 구성된다. 각 질문에 대해 '매우 그렇다'(1점)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4점)로 응답하며 자아통제감의 두 문항은 역채점한다. 점수가 높을수록 통제감이 높으며, 점수가 낮을수록 통제감을 적게 느낀다. 김미혜 외(2000)의 연구에서 통제감 척도에 대한 신뢰도(Cronbach's α)는 .75로, 본 연구에서는 .80으로 나타났다.

우울

본 연구에서는 우울을 측정하기 위해 한국판 무망감 우울증상 척도(Hopelessness Depression Questionnaire Korean Version)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Metalsky와 Joiner(1997)가 개발한 HDSQ(Hopelessness Depression Symptom Questionnaire)를 윤소미, 이영호의 연구(2004)에서 우리말로 번안 및 타당화 한 척도이다. 이는 우울증 하위 유형인 무망감 우울증의 8개 증상을 측정하기 위한 척도이다. 총 32문항이며 8개의 하위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 별로 4개의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문장 중 본인을 가장 잘 나타낸다고 생각되는 하나의 문장을 선택하여 번호를 기입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무망감 우울증의 하위 요인은 동기적 결핍, 대인관계 의존성, 정신운동 지체, 무에너지, 냉담/무쾌락, 불면증, 집중곤란/반추, 자살에 대한 생각으로 구성된다. 점수가 높을수록 무망감 우울이 높음을 의미한다. 측정도구의 신뢰도(Cronbach's α)는 윤소미 외(2004)의 연구에는 .83으로, 본 연구에서는 .92로 나타났다.

여성들의 지지

본 연구에서는 여성들의 지지를 측정하기 위해, 박지원(1985)이 개발 및 타당화하고 유은경, 설현수(2005)가 연구에서 사용한 사회적 지지 척도를 일부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문항의 예시는 '내 주변 사람들은 내가 사랑과 보살핌을 받고 있다고 느끼게 해준다.' '내 주변 사람들은 내가 취한 행동의 옳고 그름을 객관적으로 평가해준다.'와 같으며 모든 문항은 '내 주변 사람들은'으로 시작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내 주변 여성들은'으로 수정하여 여성들의 지지를 측정하였다. 여성들의 지지 척도는 주변 여성들의 지지를 개인이 지각하는 정도를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매우 그렇다(5점)'의 리커트 형식으로 응답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하위 항목으로는 정서적 지지, 평가적 지지, 정보적 지지, 물질적 지지가 있다. 순서대로 7문항, 6문항, 6문항, 6문항이며 총 25문항이다. 정서적 지지는 개인이 여성으로부터 받는 격려, 경청, 보살핌, 친밀감 등과 같은 정서적인 지지를 경험하는 정도를 측정하며, 평가적 지지는 객관적인 평가, 칭찬, 의견 존중 등과 같이 여성으로부터 평가와 관련된 정보를 얻는 것을 측정한다. 정보적 지지는 충고 및 조언, 정보와 지식, 대처 방안 제시 등과 같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측정한다. 물질적 지지는 필요할 때 물건이나 돈을 빌려주거나 시간을 내어주는 행위 등 물질적으로 돕는 행동이 포함되어 있다. 총점이 높을수록 여성들의 지지가 높은 것으로 해석한다. 박지원(1985)의 연구에서 문항전체에 대한 신뢰도(Cronbach's α)는 .94로, 유은경, 설현수(2005)의 연구에서는 .94로, 본 연구에서는 .97로 나타났다.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 통제감, 우울, 그리고 여성들의 지지 간의 관계를 검증하기 위해 SPSS 22.0 프로그램과 PROCESS Macro for SPSS 3.5를 사용하였다. 구체적인 분석과정 및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 Cronbach's α 를 확인하고, 각 변인들의 기술통계치를 확인하였다. 선정된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Pearson 상관계수를 구하였다. 둘째, PROCESS Macro model 4로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셋째, PROCESS Macro model 14로 조절된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또한, 조건부 간접효과(conditional indirect effect)를 Bootstrapping 방식으로 통계적 유의성을 확인하였다. 부트스트랩 샘플을 5,000개로 지정하였고, 신뢰구간은 95%로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본 연구에서 사용한 주요 변인들의 기술통계치를 살펴보았다. 청년기 여성의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 통제감, 우울, 여성들의 지지의 일반적인 기술 통계치를 살펴보기 위해 평균, 표준편차를 살펴보고 정규성 검정을 실시하기 위해 왜도, 첨도 등을 확인하였다. 측정변인의 기술통계 산출 결과는 표 2와 같다.

본 연구의 주요 변수인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 통제감, 우울, 여성들의 지지 사이의 상관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피어슨의 상관관계 분석(Pearson's correlat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은 통제감($r=.418, p<.01$)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우울($r=-.311, p<.01$)과는 유의한 부(-)적 상관을, 여성들의 지지($r=.249, p<.01$)와는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통제감은 우울($r=-.589, p<.01$)과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를, 여성들의 지지($r=.414, p<.01$)와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우울은 여성들의 지지

결 과

표 2. 변인들의 기술 통계치 및 상관관계

	1	2	3	4
1.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	1			
2. 통제감	.418**	1		
3. 우울	-.311**	-.589**	1	
4. 여성들의 지지	.249**	.414**	-.320**	1
평균	4.5415	3.0611	1.6358	4.2621
표준편차	1.0603	.5455	.3738	.6742
왜도	.105	-.291	.844	-1.366
첨도	-.376	-.193	.668	3.042

** $p<.01$

($r = -.320, p < .01$)와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 우울의 관계에서 통제감의 매개효과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과 우울의 관계에서 통제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PROCESS macro model 4를 사용하였다. 검증 결과는 그림 2에 제시하였다. 검증결과, 청년기 여성의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이 통제감에 미치는 영향은 $b = .2152$ 로 유의한($p < .001$) 결과가 나타나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이 약할수록 통제감이 낮아진다. 통제감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은 $b = -.3807$ 로, 역시 유의하게 나타나($p < .001$) 낮은 통제감은 높은 우울로 이어졌다. 또한,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이 우울에 미치는 총 효과는 $b = -.1098$ 로 유의한 결과($p < .001$)를 보였으나, 매개변수를 통제할 경우에는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이 우울에 미치는 직접효과가 $b = -.0279$ 로 유의하지 않은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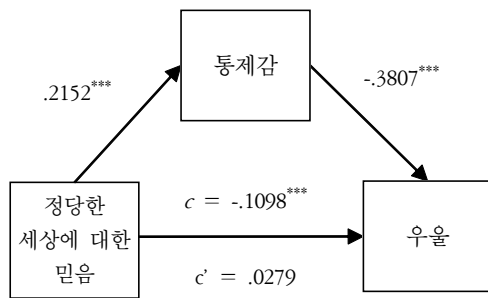
으로 나타났다. 즉,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이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데 있어 통제감은 완전매개 역할을 한다.

통제감의 간접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검증하기 위해 5000개의 표본을 추출하여 부트스트랩을 실시하였다. 검증결과, 간접효과($b = -.0819$)의 95% 신뢰구간에서 상한값과 하한값 $[-.1219, -.0456]$ 사이에 0을 포함하지 않아 간접효과가 검증되었다. 즉, 낮은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이 통제감을 낮춰 우울을 높이는 경로가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 통제감, 우울의 관계에서 여성들의 지지의 조절된 매개효과

앞서 살펴본 결과,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이 통제감을 매개하여 우울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간접효과를 여성들의 지지가 조절하는지 검증하기 위해 Hayes(2012) 프로세스 매크로(Model 14)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그림 3과 표 3에 제시하였다. 제시된 바와 같이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이 통제감에 미치는 영향은 $b = .2152$ 로 유의하였으며($p < .001$) 통제감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도 $b = -.3574$ 로 유의한 결과를 보였다($p < .001$). 여성들의 지지와 통제감의 상호작용항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은 $b = .1288$ 로 역시 유의하게($p < .01$) 나타났다. 이를 종합하면,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이 통제감을 매개하여 우울에 미치는 영향은 여성들의 지지에 따라 조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절변인의 수준에 따른 조절된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에 대해서 Bootstrapping을 통해 검증하였다. 결과를 살펴보면 여성들의 지지의 값이 평균-1SD,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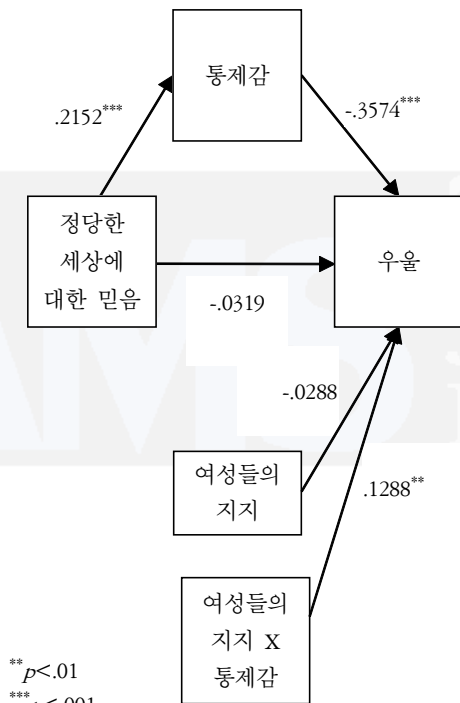
*** $p < .001$, 경로계수는 비표준화 계수임.
 c = 매개변인이 있는 모형에서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이 우울에 미치는 총효과
 c' = 매개변인이 없는 모형에서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이 우울에 미치는 직접효과

그림 2. 매개모형 분석결과

표 3. 여성들의 지지의 조절된 매개효과 검증 결과

경로	<i>b</i>	<i>SE</i>	<i>t</i>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 → 통제감	.2152	.0285	7.5536***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 → 우울	-.0319	.0190	-1.6744
통제감(A) → 우울	-.3574	.0390	-9.1543***
여성들의 지지(B) → 우울	-.0288	.0303	-.9498
(A) X (B) → 우울	.1288	.0458	2.8096**

p*<.01, *p*<.001



***p*<.01
****p*<.001

경로계수는 비표준화된 계수임.

그림 3. 조절된 매개효과의 통계적 모형

평균+1SD일 때 상한값과 하한값은 차례로 [-.1350, -.0583], [-.1135, -.0396], [-.1070, -.0222]로 모두 LLCI와 ULCI 사이에 0을 포함하지 않아 세 수준에서 모두 조건부 간접효과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세 수준에서 조

절된 매개효과가 모두 유의미하다. 또한, -1SD일 때 *b*=-.0931, 평균일 때 *b*=-.0731, +1SD일 때 *b*=-.0587로, 여성들의 지지의 수준이 높아질수록 매개변인이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이 줄어든다. 이는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이 낮을수록 통제감이 낮아지고 이는 높은 우울로 나타나는데, 이러한 매개효과는 여성들의 지지가 높을수록 완화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논 의

본 연구에서는 청년기 여성을 대상으로,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이 어떠한 경로를 통해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먼저, 청년기 여성의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이 통제감을 통해 우울에 도달하는 매개모형을 검증하였다. 다음으로는 청년기 여성의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 통제감, 그리고 우울 사이에서 여성들의 지지의 조절된 매개모형을 검증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년기 여성의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과 우울의 관계에서 통제감의 매개효과는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완전매개 효과가 검증되었다.

즉, 청년기 여성은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이 낮을수록 통제감이 낮게 나타나고, 이는 높은 우울로 이어진다. 통제감은 통계검증 결과 완전매개 효과를 갖기 때문에, 세상이 정당하지 않다고 인식하는 것 자체가 우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기보다는, 세상이 정당하지 않다는 인식이 자신이 가진 통제감을 낮게 인식하게 하며, 낮은 통제감을 통해 우울로 이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결과는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이 낮을 경우 자신의 행동이 적절한 절차에 따라 판단되며, 자신의 행동에 대한 적절한 결과가 주어질 것이라는 믿음이 적기 때문에 통제감을 낮게 인식하게 된다는 선행연구와 맥락을 같이 한다 (채향화, 2011; 최지윤 외, 2014; Lerner, 1980; Lerner & Miller, 1978). 또한, 자신이 상황을 통제할 수 없다고 여기는 것과 같이 외적 통제 소재를 갖는 경우는 높은 우울을 경험한다는 선행연구들(Burger, 1984; Costello, 1982; Evans, 1981; Fleming et al., 1983; Mullins et al., 1985)과 같은 결과가 본 연구에서도 일치하게 도출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세상이 부당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여성의 우울을 낮추기 위해서는 자신이 가진 통제감에 대해 인식시켜주고, 통제감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필요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사회정의에 관심을 가지고 사회환경적 맥락으로 범위를 확장해서 바라보는 최근 상담심리학계의 추세에 따라(최가희, 2018) 개입방법도 사회구조 내의 여성의 경험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즉, 여성이 가진 통제력을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여성이 사회 내에서 경험하는 사회적 경험에 초점을 맞추어 개입방안을 생각하는 것이 적절하다. 이를 적용하여 상담을 진행할 때, 상담자는 내담자로 하여금

세상이 부당하다고 여기게 한 경험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이로 인해 통제력을 상실하거나 무기력하게 느꼈던 적은 있었는지 등에 대해 탐색하되, 내담자 개인의 문제로 바라보기보다 사회 구조적인 장벽의 차원에서 이해하고 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다. 또한, 상담과정을 통해서 여성에게 다양한 근로기회 및 자율성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탐색하거나 제공하는 것도 여성의 통제감을 회복시키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처럼 사회구조를 공정하고 안전하게 변화시켜 내담자의 사회적 행동을 이끌어내는 것은, 여성의 통제감을 회복시키며, 결과적으로 여성의 우울을 낮추는 데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청년기 여성의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과 통제감, 우울의 관계에서 여성들의 지지의 조절된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그 결과,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과 우울의 관계에서 통제감의 매개효과를 여성들의 지지가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다양한 경험으로 인해 세상이 부당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여성들은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적다고 느끼게 된다. 하지만 본 연구 결과는, 세상이 부당하고, 자신이 이 세상에서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적다고 느끼더라도 여성들의 지지를 통해 부당한 세상과 낮은 통제감으로 인한 영향을 조절해 우울을 줄일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를 상담장면에 적용해 보면, 다양한 요인과 경험들로 인해 세상이 부당하다고 여기며, 통제감을 상실하고 우울을 경험하고 있는 청년기 여성에게 여성들의 지지를 활용해 개입을 시도할 수 있다. 예컨대, 여성들의 지지를 경험할 수 있도록 여성들로 구성된 지지집단을 형성하거나 집단상담을 제공할 수 있다. 혹은, 현재 내담자가 인식

하지 못하고 있지만 주변 여성들로부터 받고 있었던 지지의 가능성에 대해 함께 찾아 인식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

이처럼 여성의 우울에 대해서 다른 여성들과의 공동체에서 이루어지는 사회적 상호작용, 혹은 같은 경험을 한 여성들의 지지 경험을 통해 여성들이 통제력을 회복하고 임파워링(empowering)하도록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성들의 지지는 임파워먼트(empowerment)의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임파워먼트란, 한 개인이 사회에 존재하는 억압 속에서 자신이 어떻게 사회화가 되었는지를 이해하고, 자신의 고유한 역량을 발견하여, 스스로의 삶을 결정하게 하는 과정을 말한다(최가희, 2018; Kidd & Kral, 2005; Wolff, 2014). 이러한 임파워먼트는 인식된 통제감의 증진으로 경험되거나 혹은, 실질적인 통제 증가로 경험될 수 있다(Rapport, 1987). 임파워링의 상담과정을 통해서 상담자는 내담자가 사회체계 내에서 받아왔던 억압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 사회체계 변화를 위한 지지체계를 형성한다. 그리고 이러한 지지체계는 사회변화를 만들어 또 다른 개인에게 억압을 이해하도록 돕는 순환 구조를 가진다(Harro, 2000). 이와 같이 여성들의 지지와 같은 움직임은 지지를 경험하는 개인에게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동시에 사회적 체계에 영향을 미친다. 이는 여성이라는 개인은 사회문화적 맥락 속에 존재하며 사회구조 및 체계의 영향을 받는 존재이기도 하지만, 사회구조 및 체계에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의미한다. 즉, 여성들의 지지는 그 자체로도 여성들의 낮은 통제감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낮은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과 낮은 통제감을 갖도록 한 사회구조에도 영향을 미쳐 우울에 개입할 수

있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연구의 결과 및 논의를 토대로 한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년기 여성의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이 우울에 이르는 구체적인 경로를 검증하였다. 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살펴보면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이 우울에 미치는 경로에 대해서는 다양하고 일관적이지 않은 변인으로 설명되어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이 어떠한 기제를 통해 우울로 이어지는지 확인하기 어려웠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Seligman(1972)의 학습된 무기력 이론을 적용하여 설정한 모형을 통해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이 통제감을 매개로 우울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검증할 수 있게 밝혀냈다. 즉, 청년기 여성이 정당한 세상에 대해 갖고 있는 인식이 우울에 어떤 경로를 통해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통제감이 유의한 관련을 가진다는 결과를 도출해냈는데, 이와 같이 우울이라는 청년기 여성의 주요한 심리적 변인에 대해 세부 경로를 밝혀냈다는 데에 의의를 갖는다.

둘째, 본 연구는 여성들의 지지에 관해 이루어졌던 선행연구를 통합하고 확장하여 여성들의 지지가 여성 심리에 미치는 효과를 밝혀냈다는 데에 의의를 갖는다. 여성들의 지지를 통제감과 관련지어 제안하거나 무기력 및 불안은 여성들의 지지와 함께 언급한 질적 연구는 존재하였으나 여성들의 지지를 모형의 직접적인 변인으로 설정하여 통계적으로 유의성을 검증한 연구는 존재하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여성들의 지지에 대해 제안하거나 필요성을 밝힌 여러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여성들의 지지를 심리적 변인으로 포함한 모형을 최초로 설정하고 검증하였으며 유의미한 결과를 밝혀내었다는 의의를 갖는다. 이를 통

해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 우울 및 통제감과 관련하여 여성들의 지지의 영향을 밝혀냈으며 앞으로의 후속연구에서 다른 심리적 변인과의 관련성을 살펴볼 수 있도록 기초적인 자료를 제공하였다.

셋째, 여성이 경험하는 우울을 개인적 차원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맥락을 고려한 차원에서 바라보아 여성의 우울을 바라보는 관점과 개입방법의 범위를 확장시켰다는 의의를 가진다. 본 연구는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을 독립변인으로 설정하여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이는 사회구조의 공정함에 대한 여성들의 인식을 분석한 것으로 여성의 우울이 사회의 구조와 그 구조 내에서의 경험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또한 이에 대한 개입 방안도 여성들의 지지를 매개의 조절변인으로 설정하여 여성들이 다른 여성들과 사회적 맥락 안에서 상호작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하였다. 이는 우울을 경험하는 여성에게 개입하기 위해서는, 여성이 통제감과 자율성을 회복하는 방향으로 사회구조를 변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 그리고 여성이 사회에서 경험한 것과 인식하는 것에 대해 주변 여성들과 상호작용하고 서로 지지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는 점을 시사한다.

본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청년기 여성을 대상으로 연구대상자를 모집하였으나 거주지역이 서울과 경기도/인천에서 대부분 모집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를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여성에게 일반화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거주지역이 다양한 대상을 모집하여 연구할 필요가 있다.

둘째, 후속연구에서는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을 세분화하여, 보다 직접적인 결과를 확인할 것을 제안한다. 정당한 세상에 대한 개인적 믿음은 정서나 자존감과 같이 정신건강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Sutton & Douglas, 2005). 정당한 세상에 대한 개인적 믿음이 높을 경우는 우울이나 불안에 덜 취약하며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는 능력이 높게 나타나(Otto, & Dalbert, 2005) 우울과 정당한 세상에 대한 개인적인 믿음은 보다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정당한 세상에 대한 개인적 믿음이 강한 사람은 타인의 도움과 지지를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타인을 신뢰하는 경향이 있어 사회적 지지와도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Dalbert, 2001).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정당한 세상에 대한 개인적인 믿음과 우울, 혹은 여성들의 지지 간의 관련성을 살펴본다면 좀 더 직접적인 효과를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여성들의 지지를 측정할 때, '내 주변 여성들'로부터 받는 지지에 대해 응답하도록 하여, 여성들의 지지를 측정하였다. 응답자에 따라서 온라인 관계를 포함하여 응답하였을 가능성도 있지만, 대면 상황에서 주로 만나는 여성들만을 생각하고 응답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온라인 상황에서도 여성들의 공동체가 활발하게 형성되어 있으며, SNS와 같이 온라인상의 여성들로부터 받는 지지도 상당히 많을 것이라고 예상된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여성들의 지지에 대해 측정할 때, 온라인상에서 만나는 여성들까지도 포함하여 응답하도록 한다면, 비대면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여성들의 지지의 효과에 대해서도 측정하고 검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넷째, 후속연구에서는 여성들의 지지뿐만 아니라 각 개인에게 중요하며 소속감을 느끼게 하는 대상들을 다양하게 탐색하여 그들로부터 받는 지지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여성에게는 같은 경험을 한 여성뿐만 아니라 다른 집단이 중요할 수 있고, 개인별로 중요하게 여기고 소속감을 느끼는 집단은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 강가영, 장유미 (2013). 청소년의 공동체의식에 관한 연구. *미래청소년학회지*, 10(1), 97-123.
- 강상경 (2010). 우울이 자살을 예측하는가?: 우울과 자살태도 관계의 성별·연령 차이. *사회복지연구*, 41(2), 67-99.
- 강혜원, 이정윤 (2020). 미묘한 성차별 (Gender Microaggression)에 대한 개념도 연구: 20대 여성을 중심으로. *여성연구*, 106(3), 63-92.
- 고영란 (2015). '디지털 성폭력' 근절 운동 참여자들의 분노와 여성 정체성.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다운, 이창한 (2017). 여성 가구 형태별 범죄 두려움에 대한 분석. *한국범죄심리연구*, 13(2), 5-32.
- 김유나, 이계창 (2018). 지역사회안전이 여성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다층분석. *여성연구*, 99(4), 5-30.
- 김은하, 김도연, 박한솔, 김수용, 김지수 (2017). 한국어판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 척도(Belief in a Just World Scale: K-BJWS)의 타당화.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9(3), 689-710.
- 박경순, 박영란 (2018). 여성노인의 성역할 태도와 우울의 관계.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57, 29-56.
- 박미화 (2016). 특수교사와 일반교사가 지각한 사회적지지가 심리적 소진에 미치는 영향. *지체. 중복. 건강장애연구*, 59(3), 109-128.
- 박은옥 (2020). 한국 성인의 사회경제적 취약성과 우울. *보건과 사회과학*, 55(1), 205-219.
- 박지원. (1985). 사회적 지지척도 개발을 위한 일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배지연, 김원형, 윤경아 (2005). 노인의 우울 및 자살생각에 있어서 사회적지지의 완충효과. *한국노년학*, 25(3), 59-73.
- 신하영 (2017). 청년여성의 일 경험과 일자리: 서울시 청년여성 사례를 중심으로. *사회복지법제학회 학술대회지*, 579-604.
- 유은경, 설현수 (2015). 사회적지지 척도의 요인구조 탐색. *조사연구*, 16(1), 155-184.
- 윤소미 (2019).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윤소미, 이영호 (2004). 한국판 무망감 우울증상 척도의 타당화 연구: 청소년 대상으로.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23(4), 1051-1063.
- 이명신, 부수현 (2019). 중년부부의 갈등인식정도, 갈등해결전략, 책임분담에 따른 군집 유형 비교: 부부권력, 결혼만족과 스트레스의 차이. *사회복지 실천과 연구*, 16(2), 43-80.
- 이미라 (2000). 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지지체계에 관한 연구. 대구

- 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선희 (2021). 대학생의 정당한 세상에 대한 개인적인 믿음과 전더감수성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경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안숙 (2015). 현대한국사회에서 공동체심리학의 역할: 공동체심리학의 핵심 가치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34(3), 667-683.
- 채향화 (2011). 지각된 차별감에 대한 통제감, 대처방식과 심리적 안녕감의 관계: 재한 중국유학생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최가희 (2018). 사회정의와 상담심리의 역할.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30(2), 249-271.
- 최지윤, 오경자 (2014). 통제욕구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 스트레스 상황에서 나타나는 지각된 통제 가능성의 조절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33(1), 209-220.
- 황인영, 홍선희 (2011). 여성의 성역할인식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여성주의 관점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6(4), 477-498.
- 홍영수 (2004). 청소년의 자살행동에 대한 생활스트레스 및 자기존중감의 영향. *한국청소년연구*, (39,40), 153-182.
- 황매향, 김영선 (2010). 초등학교 6 학년 남녀 아동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와 학업적 자기효능감. *교육논총*, 30(2), 139-159.
- Bandura, A., Freeman, W. H., & Lightsey, R. (1999). Self-efficacy: The exercise of control.
- Burger, J. M. (1984). Desire for control, locus of control, and proneness to depression. *Journal of personality*, 52(1), 71-89.
- Chen, Y. Y., Subramanian, S. V., Acevedo-Garcia, D., & Kawachi, I. (2005). Women's status and depressive symptoms: a multilevel analysis. *Social science & medicine*, 60(1), 49-60.
- Cobb, S. (1976). Social Support as a Moderator of Life Stress. *Psychosomatic Medicine*, 38(5), 300-314.
- Constantine, M. G., Hage, S. M., Kindaichi, M. M., & Bryant, R. M. (2007). Social justice and multicultural issues: Implications for the practice and training of counselors and counseling psychologists. *Journal of Counseling & Development*, 85(1), 24-29.
- Correia, I., & Dalbert, C. (2007). Belief in a just world, justice concerns, and well-being at Portuguese schools. *European Journal of Psychology of Education*, 22(4), 421-437.
- Costello, E. J. (1982). Locus of control and depression in students and psychiatric outpatients.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38(2), 340-343.
- Dalbert, C. (2001). The justice motive as a personal resource: Dealing with challenges and critical life events. New York: Plenum.
- Dalbert, C., Fisch, U., & Montada, L. (1992). Is inequality unjust? Evaluating women's career chances. *European Review of Applied Psychology/Revue Européenne de Psychologie Appliquée*.
- Dzuka, J., & Dalbert, C. (2007). Student violence against teachers: Teachers' well-being and the belief in a just world. *European Psychologist*, 12(4), 253.
- E-S, Kim & J-Y, Lee (2021). A Qualitative Study on the Effects of Hidden Cameras on the Everyday Lives and Romantic Relationships of

- Female College Students. *Asian Women*, 37 (3), <https://doi.org/10.14431/aw.2021.9.37.3.00>
- Evans, R. G. (1981). The relationship of two measures of perceived control to depression.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45(1), 66-70.
- Fischer, A. R., & Holz, K. B. (2010). Testing a model of women's personal sense of justice, control, well-being, and distress in the context of sexist discrimination. *Psychology of Women Quarterly*, 34(3), 297-310.
- Fleming, J. S., & Courtney, B. E. (1983). Belief in a difficult world: The psychological adjustment component of internal-external locus of control.
- Furnham, A. (2003). Belief in a just world: Research progress over the past decade.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34(5), 795-817.
- Harro, B. (2000). The cycle of liberation. *Readings for diversity and social justice*, 2, 52-58.
- Hayes, A. F. (2012). PROCESS: A versatile computational tool for observed variable mediation, moderation, and conditional process modeling.
- Hiroto, D. S., & Seligman, M. E. (1975). Generality of learned helplessness in ma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1(2), 311.
- Jiang, F., Yue, X., Lu, S., Yu, G., & Zhu, F. (2016). How belief in a just world benefits mental health: The effects of optimism and gratitude. *Social Indicators Research*, 126(1), 411-423.
- Kessler, R. C. (2003). Epidemiology of women and depression. *Journal of affective disorders*, 74(1), 5-13.
- Lerner, M. J. (1980). The belief in a just world. In *The Belief in a just World* (pp. 9-30). Springer, Boston, MA.
- Lerner, M. J., & Miller, D. T. (1978). Just world research and the attribution process: Looking back and ahead. *Psychological bulletin*, 85(5), 1030.
- Lucas, T., Alexander, S., Firestone, I., & LeBreton, J. M. (2007). Development and initial validation of a procedural and distributive just world measure.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43(1), 71-82
- Lucas, T., Zhdanova, L., & Alexander, S. (2011). Procedural and distributive justice beliefs for self and others. *Journal of Individual Differences*.
- Metalsky, G. I., & Joiner, T. E. (1997). The hopelessness depression symptom questionnaire.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21(3), 359-384.
- Mullins, L. L., Siegel, L. J., & Hodges, K. (1985). Cognitive problem-solving and life event correlates of depressive symptoms in children.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13(2), 305-314.
- Nudelman, G., Otto, K., & Dalbert, C. (2016). Can belief in a just world buffer mood and career prospects of people in need of risk protection? First experimental evidence. *Risk analysis*, 36(12), 2247-2257.
- Otto, K., & Dalbert, C. (2005). Belief in a just world and its functions for young prisoners.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39(6), 559-573.
- Otto, K., Boos, A., Dalbert, C., Schöps, D., & Hoyer, J. (2006). Posttraumatic symptoms,

- depression, and anxiety of flood victims: The impact of the belief in a just world.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40(5), 1075-1084.
- Pearlin, L. I., Menaghan, E. G., Lieberman, M. A., & Mullan, J. T. (1981). The stress process.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337-356.
- Rihmer, Z. (2007). Suicide risk in mood disorders. *Current opinion in psychiatry*, 20(1), 17-22.
- Schmitt, M., & Maes, J. (1999). Vorschlag zur Vereinfachung des Beck-Depressions-Inventars (BDI). Inst. für Psychologie. quoted in Dzuka, J., & Dalbert, C. (2007). Student violence against teachers: Teachers' well-being and the belief in a just world. *European Psychologist*, 12(4), 253.
- Schwarzer, R. (1992). Self-efficacy in the adoption and maintenance of health behaviors: theoretic approaches and a new mode. *Self-efficacy: Thought control of action*, 217, 242.
- Seligman, M. E. (1972). Learned helplessness. *Annual review of medicine*, 23(1), 407-412.
- Sutton, R. M., & Douglas, K. M. (2005). Justice for all, or just for me? More evidence of the importance of the self-other distinction in just-world belief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39(3), 637-645.
- Wolff, T. (2014). Community psychology practice: Expanding the impact of psychology's work. *American Psychologist*, 69(8), 803.
- 1차원고접수 : 2021. 07. 29.
심사통과접수 : 2021. 09. 09.
최종원고접수 : 2021. 09. 30.

Belief in a Just World, Sense of Control, Women's Support, and Depression in Young Women: a Moderated Mediation Model

Ga Young Kim

Ji Yeon Lee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This study examined the influence of young women's belief in the just world(BJW) on their depression, focusing on contextual factors understanding women's depression. Specifically, this study tested the mediating effect of sense of control in the relationship between belief in the just world and depression, and further examined the moderated mediation effect of women's support in the mediation model. A total of 271 young women completed the following questionnaires: Belief in a Just World Scale (K-BJWS), Mastery Scale, Hopelessness Depression Questionnaire Korean Version, Women's Support Scale. The collected data was analyzed using SPSS 22.0 and PROCESS 3.5.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a sense of control has been shown to mediate the relationship between belief in the just world and depression. Second, women's support moderated the mediating effect of sense of control. Based on these results, we discussed the significance of this study's findings and strategies for counseling intervention. Lastly, limitations of this study and suggestions for further study were also discussed.

Key words : *Belief in a Just World, Depression, Sense of Control, Women's Support*